

종교정향과 사회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연구 :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김 동 기

강남대학

본 연구에서는 신앙의 태도에 따라 종교의 정향(목적적, 수단적, 추구적)을 구분해 보았고, 종교의 정향에 따라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개신교 및 가톨릭신자, 신학대학생등 모두 153명을 대상으로 종교정향 척도와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정도를 응답하게 하여 점수화하였다. 종교척도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전체한 세가지 정향으로 신앙의 태도를 구분지을수 있지만 각각은 독립적인 정향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연령, 종교경력, 종교종류의 측면에서는 귀인의 정도 차이가 없었고, 종교의 정향중 수단적(외적)정향과 추구적(상호작용적)정향간에서 귀인의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했던 수단적 정향과 목적적(외적)정향에서는 차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았다.

사회적 사상이나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그 인과를 찾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그런 맥락에서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 인지이론학자들의 주장이다. 어떤 행동의 원인을 알때, 환경을 극복하려는 개인적 감정을 증대시키고 세상을 더 안정된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예, Kelley, 1971; Wortman, 1976).

귀인이론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할 때 인과귀인 도식이라는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Heider(1958)는 행위의 결과는 환경적 힘과 개인적 힘의 결합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즉 '할 수 있는'과 '하려고 하는'의 결과생성에 대한 두가지 충분조건으로 인과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의 '하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귀인이 결정되어 그 사람의 특정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는 그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는 의미이다.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은 일반적인 의무표준(ought standard)에 따라 지각한다고 하였고, 신용이나 비난은 행동의 귀인에 작용하여 요구되는 의무이상의 좋은 일을 했을때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 행동을 했다고 신용을 얻고, 비난의 경우는 의무표준에 이르지 못한 실패로 귀인하게 되어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이다(Ross & DiTecco, 1975).

Heider는 이러한 책임에 대한 귀인을 연상, 인과성, 예견성, 의도성, 정당성으로 구분하는 5단계의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Fishbein과 Ajzen(1973)은 이런 순서는 책임성 발달성숙의 발달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Shaver(1985)는 책임과 비난의 개념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인과에 대한 추론과 대조적으로 책임에 대한 판단들은 다른 여러 차원의 고려가 요구된다고 보고, 어떤 사람에게 책임이 돌리지는 것은 첫째, 그 사

람의 행위결과에 대해 관찰되었거나 분명히 밝혀진 인과적 기여, 둘째, 행위결과에 대한 지식, 셋째, 결과를 일으킬 의도, 넷째, 자발성과 강제성의 정도, 다섯째, 행위의 도덕적 잘못에 대한 이해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책임의 귀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개인적 원인(내적인 요인)과 상황적 원인(외적인 요인)이다. 그리하여 책임 귀인을 할 때는 내적 외적 귀인 도식에 의하여 독특성 도식과 합의를 도식이 행동준거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둘 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우를 기본적 귀인 오류라 명명하였다(Perry & Bussey, 1984).

일반적으로 사회적 사상이나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적으로 귀인하느냐 혹은 외적으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그 책임귀인의 정도와 처벌의 강도는 달라진다(Carroll & Payne, 1977).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내적으로 귀인되는 것을 여러 방식(거부, 변명, 정당화, 핑계 등)으로 회피하려 한다(최상진, 1991). 또한 Perry 등(1977)도 책임을 귀인하는 과정에서 귀인하는 사람의 특성(예, 성격, 특질, 의도, 동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종교적 경험 및 종교적 태도이다.

Proudfoot와 Shaver(1975)는 종교심리학에 귀인 이론을 적용시키는 논의에서, 귀인이론은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해석과 명칭부여 그리고 종교경험에 대한 근본적 과정을 다루는데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특정 사상에 있어서 힘이나 통제에 대한 귀인은 행위자나 행위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 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와같이 다르게 귀인하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종교적 원리와 신념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Allport(1937)는 초기에 종교와 관련하여 성숙한 성격을 가진 종교의 특성을 첫째, 신체의 욕구 보다는 이상적이고 가치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둘째, 자신을 객관화해서 조망하는 능력을 가지며, 셋째, 일관된 인생철학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기의 비성숙 對 성숙 종교이론을 외적 對 내적 종교이론으로 발전시켜, 외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종교를 이용하는 반면 내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종교를 통해 살아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들 가운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 결과들에 대한 종교(기독교)인들의 인과귀인에 관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범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도 '사회통계조사결과'(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54%(불교 27.7%, 개신교 18.6%, 가톨릭 5.7%, 유교 1% 등)에 이르고 있다. 그중 기독교(Christian)가 24.3%이고, 시지역 이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각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병리적 현상을 우려하여 사회평화를 위해 국민들이 이타성을 가지고 성숙된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다(예컨대, 가톨릭에서의 '내탓이오'운동).

종교가 반드시 사회를 정화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고, 종교를 통해 성숙된 사람이 지닌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종교가 목적하는 바는 인간이 성숙되게 하는 것이 그 일부이며, 성숙해질 수 있는 방식중의 하나가 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명제이다.

초기에 종교를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연구한 학자들은 종교를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지 혹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Allport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은 1945년에 신앙을 갖게되는 방식을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자기중심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수단(means)으로 하는 것(extrinsic orientation)이고, 둘째는 인생의 주요 목적(end)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intrinsic orientation)이라 하였다. 그들은 이와같이 개인의 동기화(내적 혹은 외적)에 의해 신앙을 갖는 방식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을 개발하여 참된 신앙 즉, 성숙종교의 태도를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Batson과 Ventis(1982)는 Allport의 두가지 방식의 종교개념에서 결여된 특성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첫째가 개인이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통합성이고, 둘째는 자기비판 및 의심을 할 수 있는 준비성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개인이 시험에 처한 경우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탐색케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 세가지 특성(복잡성, 의심, 시험)은 내면적 외면적 정향과는 상이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추구적 정향(quest orientation)이라 하였다. 추구적 정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비극에 의해 야기된 실존문제에 개방적이고 대응적인 방식을 취하는 신앙의 정도를 알아보는 상호작용적 척도(interactional scale)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신앙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종교의 정향이 구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종교의 정향에 따라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앞서 밝힌 바와같이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을 내적(자신의 탓)으로 돌리는가 혹은 외적(타인의 탓)으로 돌리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 한 개인의 동기에 의해서 갖게되는 신앙적 태도에 따라 종교를 수단적 목적적 추구적으로 지향하는 정향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예컨대, 종교경력, 종교정향)에 따라 귀인의 방향이 다를 수 있지않는가 하는 문제를 가정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문제들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신앙경력에 따라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날 것이다.
- 가설 2. 신앙의 태도에 따라 종교정향이 구분될 것이다.
- 가설 3. 종교정향에 따라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시 및 수원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153명)으로서 교회 혹은 성당에 나가며 교회 활동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과 개신

교 신학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비교 집단은 비종교인으로서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61명(남자 45명, 여자 16명)의 사회인들이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측정도구는 모두 66문항의 종교정향척도(9분척)와 10개의 사회현상 귀인 항목(11분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정향척도에는 Allport와 Ross(1967)가 제작한 20항목의 외면적 내면적 종교정향척도, Baston과 Ventis(1982)가 제작한 종교생활검사인 내적, 외적, 상호작용의 종교정향과 위조항목이 포함된 27개의 척도 항목, Glock와 Stark(1966)가 제작한 12개의 정통교리척도(Doctrinal Orthodoxy Scale), 연구자가 첨가한 7개의 위조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현상의 귀인문항은 1990년 1월부터 1991년 5월 까지 KBS TV의 '심야 토론' '여의도 법정', MBC TV의 '시사토론' '여론광장'의 공개토론 프로그램에서 주제로 선정된 60개의 제목중 10개를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하였다. 그중 가장 중립(11분척에서 평균치 1 이내)성격을 띤 6개의 문항(필로폰 복용자증가, 고스톱 문화, 동성동본결혼금지법, 물먹인소, 택시승차거부, 돈봉투와 교사)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4개의 위조항목도 함께 제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1년 6월부터 8월까지 153명의 피험자들에게 종교정향 척도와 사회현상 귀인문항이 함께 인쇄되어 있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종교정향척도(9분척)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신앙자세에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점수에 표기하도록 하여 최하 1점에서 최고 9점으로 채점하였다(예, 교회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장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11분척으로 되어있는 사회현상 귀인문항에서는 한 문항을 요약하여 예시하면, 필로폰 복용자가 증가하여 사회

<표 1> 피험자 집단

	개신교	가톨릭	신학대학생	전체
평균연령	29.7세	37.7세	26.4세	31.3세
평균종교경력(信歴)	18.9년	12.4년	20.7년	17.3세
피험자수	51명 (남13, 여38)	52명 (남17, 여35)	50명 (남38, 여12)	153명 (남68, 여85)

* 신학대학생에는 대학원생도 포함되었음

문제가 되는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어느정도 이냐는 질문을 하였다. 즉, '우리자신의 탓'과 '그들의 탓(필로폰 복용자)'으로 양분하여, 우리자신의 탓에는 1점(약함)에서부터 5점(강함), 그들의 탓에는 -1점(약함)에서부터 -5점(강함)으로 채점하였다. 통계적 처리는 SAS에 의한 검증방식으로 하였다.

결 과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적 반응을 종교정향과 관련지어 분석하기에 앞서, 피험자의 연령 및 종교경력(信歴)에 따른 귀인적 분석을 하였다.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폰 복용자 증가, 고스톱 문화, 동성동본 결혼금지법, 물먹인소, 택시승차 거부, 돈봉투와 교사 등의 6개의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우리의 탓'에 원인을 돌리는 경우를 내적 귀인으

로 점수화하였다. 표 2는 연령에 따른 내적 귀인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연령집단간의 차의 의미는 없었고, 비율에 의하면 30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정도이다.

종교경력에 따라 내적 귀인의 정도를 나타낸 표 3에 의하면, 연령의 경우와는 달리 信歴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소집단내에서의 信歴과 내적귀인간의 상관계수($r=.09$)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信歴집단간 귀인정

<표 4> 信歴에 따른 부적결과 귀인간의 t검증

	7년 이하	8년-19년	20년-27년
8년-19년	1.68		
20년-27년	1.37	1.23	
28년 이상	1.51	1.11	1.10

(모든 t값에서 $P>.05$)

<표 2> 연령에 따른 귀인의 정도

	17세-24세	25세-30세	31세-37세	38세-56세
귀인의 평균점수	0.59*	0.59	-0.19	0.21
내적 귀인의 비율	50%	60%	42%	54%
피험자수	30	45	45	33

* 11분척중 내적(+) 외적(-) 귀인점수

<표 3> 信歴에 따른 귀인의 정도

	7년 이하	8년-19년	20년-27년	28년 이상
귀인의 평균점수	0.10	0.13	0.42	0.38
내적 귀인의 비율	61.8%	53.2%	61.2%	73.1%
피험자수	34	44	49	26

* 11분척중 내적(+) 외적(-) 귀인점수

<표 5> 종교의 구분에 따른 귀인

	개신교	가톨릭	신학생	비신앙인
내적 귀인	25(49.0%)	25(48.1%)	24(48.0%)	26(42.6%)
외적 귀인	21(41.2%)	21(40.4%)	17(34.0%)	33(54.1%)
무응답	5(9.8%)	6(11.5%)	9(18.0%)	2(3.3%)
피험자수	51(100%)	52(100%)	50(100%)	61(100%)

도의 차의 의미(표 4참조)에서도 입증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설 1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표 5는 종교의 구분에 따른 내적 외적 귀인을 나타낸 것으로, 사회문제를 '우리의 탓'(내적 귀인)으로 돌리는 것과 '그들의 탓'(외적 귀인)으로 돌리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신학생의 경우는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류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앙인과 비신앙인간에서도 비율로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정향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번째 가설은 신앙의 태도에 따라 종교의 정향이 구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aston 등은 종교를 목적, 수단, 추구의 세 정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고 종교척도의 검사들을 이용하여 세 정향에 대한 공식을 도출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이 임의로 종교정향을 나누지 않고 정상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검사들을 재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음의 표들은 종교정향 연구를 위해서 앞서 전제한 Allport와 Ross(1967)의 종교정향척도, Baston과 Ventis(1982)의 종교생활검사, Glock와 Stark(1966)의 정통교리척도 등을 함께 검사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들이다.

표 6에서 외면적(extrinsic) 내면적(intrinsic) 종교정향은 Allport 등의 척도이고, 외적(external) 내적(internal) 상호작용적(interactional) 종교정향은 Batson 등의 척도이고, 정통교리(doctrinal orthodoxy)는 Glock 등의 척도이다. 피험자 모두 평균점수가 5점의 수준 이상인 것을 보면 신앙심이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정통교리의 점수는 상당히 높은 것

<표 6> 전체 피험자의 평균 및 표준편차

피험자 (N=153)	Mean	SD
Extrinsic	4.67*	1.07
Intrinsic	6.74	0.99
External	6.09	1.03
Internal	6.59	0.94
Interactional	5.72	1.03
Orthodoxy	7.70	1.16

* 9분척의 점수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척도간의 순위나 비율에 있어서 Batson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7에 의하면, 각 척도간들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Batson 등의 결과와 유사한 추세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다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통 교리는 내면적·내적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고, 내적 척도와 내면적 척도간의 상관도 정향연구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r = .53$). 상호작용 척도는 내적·내면적 척도 보다 오히려 외적 외면적 척도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향은 사회인(개신교와 가톨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r = .33$).

신학대학생의 경우는 사회인에 비해서 상호작용적 척도가 대체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종교를 통한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적은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Allport 등의 외면적 척도와 Batson 등의 외적 척도가 상관성이 극히 낮은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척도가 사회적 영향의 측면에 있어서 실제로 종교정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들 6개의 척도중 다른 특정 척도(내면적·내적 척도)와 상관성이 너무 높은 정통교리 척도를

<표 7> 6개의 종교정향 척도들간의 상관계수(전체 피험자 : 153명)

(N=153)	Intrinsic	External	Internal	Interactional	Orthodoxy
Extrinsic	.02	.03	-.23	.16	-.05
Intrinsic		.33	.53	.08	.66
External			.32	.12	.30
Internal				.00	.67
Interactional					.02

〈표 8〉 유형별 요인점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요인 1	0.215	-0.175	0.559	-0.396	<u>1.194</u>	-0.569	-0.420	-0.426
요인 2	-0.269	0.441	-0.825	-0.184	-0.032	0.584	-0.058	<u>2.243</u>
요인 3	<u>0.611</u>	-0.003	-1.169	0.106	-1.552	0.380	-0.477	0.116
요인 4	-0.321	0.312	-0.414	0.037	-0.136	0.426	<u>0.697</u>	-0.138
요인 5	0.289	-0.305	<u>1.369</u>	-1.843	0.034	-0.197	-0.281	0.653
요인 6	0.077	-0.550	-1.110	0.004	0.034	<u>0.622</u>	0.021	-0.419
요인 7	0.056	<u>1.444</u>	0.258	-0.065	-0.411	-1.527	-0.221	-0.022
요인 8	0.055	0.199	-0.977	-1.363	0.459	0.170	0.568	-0.633
요인 9	-0.012	-0.735	-0.857	0.210	-0.040	-0.641	0.597	0.214
요인 10	0.249	-0.263	-1.007	0.120	0.451	-0.154	-0.266	-0.359
요인 11	-0.255	0.927	0.280	0.136	0.285	-0.382	-0.129	0.523
요인 12	0.081	0.595	-1.025	-0.010	0.146	0.518	-0.437	-0.268
요인 13	0.186	-1.129	0.580	<u>0.370</u>	-0.597	-1.396	0.315	0.218

제외한 5개의 척도에 대해서 임의로 3개의 정향으로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13개로 나타났다.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하여 군집분석(clustering)을 해본 결과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유형별 요인점수를 행렬표로 나타낸 것은 표 8과 같다.

표 9는 종교정향에 따른 각 요인들에서의 최고 부하량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추출한 결과로서 요인 1은 내적 척도(내면적 내적 문항 전체의 77.8%), 요인 2는 외적 척도(외면적 외적 문항 전체의 47.1%), 요인 3은 상호작용 척도(상호작용 문항 전체의 66.7%)로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에서의 가정과 같이, 신앙의 태도에 따라 종교정향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며 그 외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해석 및 명칭부여는 해당 문항의 성격을 재검토한 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 표로 피험자를 사회인 對 신대학학생으로 구분하여 5개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에서는 6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요인별 문항수는 분산되어 판별이 어려웠다. 그리고 5개의 척도중 상호작용 척도를 제외한 4개의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그 성분이 외적 내적 정향에 관한 척도인데도 불구하고 6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다.

〈표 9〉 종교정향별 요인 부하량(최고치)

	수단적(외적) 정향 (17)	목적(내적) 정향 (18)	추구적(상호작용) 정향 (6)
요인 1	0.56 (2)	<u>0.69 (14)</u>	0.51 (1)
요인 2	<u>0.67 (8)</u>	0.33 (0)	0.25 (0)
요인 3	0.32 (0)	0.39 (1)	<u>0.75 (4)</u>
요인 4	0.46 (1)	0.66 (1)	0.23 (0)
요인 5	0.44 (1)	0.38 (0)	0.12 (0)
요인 6	0.66 (2)	0.27 (0)	0.10 (0)
요인 7	0.42 (1)	0.58 (1)	0.10 (0)
요인 8	0.40 (0)	0.33 (0)	0.30 (0)
요인 9	0.47 (1)	0.38 (1)	0.18 (1)
요인 10	0.54 (1)	0.35 (0)	0.25 (0)
요인 11	0.25 (0)	0.39 (0)	0.27 (0)
요인 12	0.24 (0)	0.43 (0)	0.17 (0)
요인 13	0.35 (0)	0.33 (0)	0.09 (0)

* ()안은 해당문항수

종교정향과 내적 외적 귀인의 검증

본 연구의 세번째 가설 즉, 종교정향에 따라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이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의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하여 군집분석(clustering)을 하였다. 모두 8개 유

<표 10>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유형별 평균점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피험자수	62	11	6	14	26	8	15	11
귀인의 평균점수	0.83*	0.64	0.77	0.69	0.16	-0.69	-0.25	-0.68

* 11분척증 내적(+) 외적(-) 귀인점수

<표 11> 종교정향과 귀인간의 T검증

	t	DF	P
수단적(외적)정향×목적적(내적)정향	2.23	(16, 25)	0.099
수단적(외적)정향×추구적(상호작용)정향	2.75	(16, 61)	0.027
목적적(내적)정향×추구적(상호작용)정향	1.24	(25, 61)	0.569

형의 피험자집단이 구분되었고, 이것을 앞서 수행한 종교정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은 군집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중 유형 1은 상호작용 정향의 성분이 강하고, 유형 2와 유형 3은 외적 정향이 강하고, 유형 5는 내적 성분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11은 외적(유형 5)정향, 내적(유형 2와 유형 3)정향, 상호작용(유형 1)정향들에 있어서 각 유형들간의 귀인점수 차이의 유의도를 밝히기 위해 t검정한 결과이다. 유형 2와 유형 3 각각은 너무 적은 피험자수이고 문항의 외형적 성분이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검증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외적·내적 정향간에는 P가 .099 수준이지만 어느정도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적 상호작용 정향간에는 .027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있고, 내적 상호작용 정향간에는 차의 의미가 없는 것(P=.569)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을 지지하는 이러한 결과는 외적(수단적)종교정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해 외적(그들의 탓)으로 귀인하며, 내적(목적)종교정향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적(추구적)종교정향을 가진 사람은 내적(우리의 탓)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종교(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에 따라 종교인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 귀인을 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주요 주제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성숙할 것이며,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이며 박애주의자일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접근을 통해서 고찰하였지만 인간의 성숙된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종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동시에 의해서 종교에 대한 정향(예, 목적, 수단, 추구)이나 종교의 종류(예,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도 달라질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상황이 종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본 연구의 가정은 개인의 종교적 정향에 따른 귀인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종교정향의 척도들에 대한 요인 분석과 군집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종교의 정향들이 각 척도가 가지고 있는 성분대로 요인분석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내적 외적 상호작용 척도 중 하나의 척도에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은 다른 두가지 척도에서

도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이중적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Batson 등이 공식화한 등식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척도 문항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유형들을 도출시켰다(표 8, 표 9 참조). 즉 세가지 정향의 41개 문항에서 13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이중 26개의 문항이 3개 요인속에 내포되어 있었다. 나머지 15개의 문항이 3개의 요인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피험자수를 많게 하거나 척도를 수정함으로써 훨씬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Glock and Stark(1966)의 정통교리 척도(doctrinal orthodoxy)는 내면적 내적 척도와 상관성($r = .66$ 이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척도점수 합산에서 제외시켰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경력, 연령 등에서는 귀인의 차이가 없었지만 종교정향들 간에서는 의미있는 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인 예측은 수단적(외적)정향은 외적 귀인이 높을 것이고, 목적적(내적)정향은 내적 귀인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이었는데 그 양자간의 차이 보다는 추구적(상호작용)정향과 수단적정향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추구적 정향은 목적적 정향과 함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과 높은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단적 지향과 다르다는 Batson 등의 주장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귀인의 측면에서는 추구적 정향이 목적적 정향보다 수단적 정향에 대하여 더 상반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추구적 정향에 해당하는 유형 1에 153명중 62명이나 되는 피험자들이 군집을 이루었으니 종교를 추구적으로 지향하는 피험자의 종교적 태도에 대한 단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표 10 참조). 또한 이 추구적 정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사람은 사회복지문제와 같은 실제문제 해결을 위해 인지구조 변화(신앙을 가지는 경우는 인지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반면에 수단적 정향의 사람은 실제문제가 그리 심각하지않고 인지구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세가지 정향을 두가지 차원에서 그 차이를 보려는 단순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종교정향들 간에서 귀인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가설 3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 검증 결과에 따르면, 종교의 경력이나 연령에서는 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향들간의 차이에 있어서 수단적 정향은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해 '남의 탓'(외적 귀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하고, 추구적 정향과 목적적 정향은 '자신의 탓'(내적 귀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에 관한 추후의 연구에서 다른 중개개념(예, 종교의 종류, 사회적 상황변인, 개인적 동기 등)을 통해 수단적 정향과 목적적 정향간의 성격 차이를 밝혀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신앙심이 깊어지고 그 성향이 변화되는 것에 대응하는 여러 측면의 귀인을 동시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배경적 이론으로는 Heider에 의해서 주장된 바가 있다. 즉, 그는 귀인은 비교적 초보적이고 분화가 되지 않는 귀인에서부터 여러 요인을 설명하는 귀인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많다고 제안하고, 보다 성숙된 의도에 비중을 두고 성장하는 동안 초보귀인에서부터 발달되는 단계가 있다는 Piaget(1932)의 이론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부적 결과에 대해 귀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McGraw(1987)의 연구와 Nogami 등(1983)의 연구에서와 같이 결과를 초래한 그 행위가 위도적-비위도적, 예측가능-예측불가능, 정당화-비정당화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책임귀인과 인과귀인이 다르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연구모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간의 차이를 연구한 Park 등(1990)이 부적 사상(통제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낮음)에서 받는 생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종교의 종류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연구문제를 부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최상진·임영식·유승엽(1991). '핑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1991년도 연차대회 학술 발표논문초록, 399-409.
- Argyle, M., & Beit-Hallahmi, B.(1975). *The social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and Boston: Routledg & Kegan Paul.
- Batson, C.D., & Ventis, W.L.(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N.Y.: Oxford University

- Press.
- Burger, J.M. (1981). Motivational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 A meta-analysis of the defensive attribu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0*, 496-512.
- Fincham, F.D. (1984). Does the distinction between causal and moral responsibility really salvage the defensive attribution hypothesis? : A critique of Nogami and Streufert's the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223-226.
- McGraw, K.M. (1987). Guilt following transgression : A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247-256.
- Moehle, D. (1983). Cognitive Dimensions of religious experi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22-145.
- Nogami, G.Y., & Streufert, S. (1983). The dimensionality of attributions of causality and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433-436.
- Park, C., Cohen, L.H., & Herb, L.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and religious coping as life stress moderators for Catholics versus Protest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62-574.
- Perry, D.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 J. : Prentice-Hall.
- Proudford, W., & Shaver, P. (1975). Attribution the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317-330.
- Sadow, D.C., & Laird, J.D. (1981). 'Irrational'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 Who's to blame for the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427-430.
- Shaver, K.G. (1975). *An introduction to attribution processes*. Cambridge Winthrop.
- Weary, G., Stanley, M., & Harvey, J.H. (1989). *Attribution*. N. Y. : Springer-Verlag.

Religious Orientation and Attribution of Negative Results in Social Phenomena : among Christians

Dong-Gi Kim

Kang 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fferentiate the religious orientation according to religious attitude,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attribution of negative results in social phenomena according to religious orientation. Subjects(Protestants, Catholics, and Protestant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religious orientation scales and attributional scales of negative results in social phenomena. In order to use five scales to measure the three orientations to religion, as a means, end, and quest, factor analysis was employed.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three religious orientations, but each component can not be said to exist independently. The significant distinction could not be made in attribution judgements in terms of age, religious history, and the different religions backgrou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means orientation and quest orientation for attribution judgements. But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was not found between means orientation and end orientation.